

제임스 밴드

화사한 봄 햇살에 이끌려 무작정 차에 올라탄 두 사람. 연인이라는 관계나, 눈부신 날씨나, ‘벚꽃이 화들짝 만개한 호숫가’라는 목적지 등 완벽하게 짜여진 로맨틱 상황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란 흡사 황량한 사막이나 다름없다. 차에 타자마자 0.3초 이내에 강력접착제라도 바른 듯 꼬옥 쥐고는 놓지 않던 두 사람의 손도 어느새 각각의 무릎위에 얽매듯 놓여있다. 대화 또한 물과 기름처럼 걸도는 것이 마치 80대 어르신들의 대화 같다. 거기다 어찌나 경제적으로 짧은 화법을 구사하는지.

“날씨 좋죠?”

“길이 막히네”

“꽃이 다 폼을까요?”

“이따 백화점 가야 되는데.”

“진주목걸이는 얼마쯤 하지?”

“조개분비물을 뭐 하러 사. 그런 거 안 해도 이뻐. 하긴 재활용은 되겠다. 미네랄이랑 생리활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미용에 좋다니까, 실증 날 때쯤 되면 갈아서 쓰면 되겠네.”



직업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나이 : 1972년생
신장 : 182cm, 체중 : 65kg
외모 : 매우 스마트해 보이나, 어딘가 모르게 어설픈.
성격 : 무척 수줍음을 많이 타나 이상형의 여성을 보면 집념의 사나이로 변신
특기 : 주체할 수 없는 박학다식
슬로건 : 총각탈출

바람결 따라 꽃피가 흩날리는 호숫가는 너무나 아름답다. 미모, 찡찡 눈물이 날 지경이다. 자꾸만 가슴이 울렁거린다. 오늘따라 진드기처럼 딱 붙어서 시야를 피곤하게 하는 커플들은 왜 이다지도 많은지... 우리에게도 저런 때가 있었나 싶다. 그리고 보니 똑똑씨와 사귀기 시작한지도 벌써 1년 반. 문득 만난지 일주년이 되던 날 똑똑씨가 해줬던 말이 기억난다.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연인들 사이에 불타는 열정을 만들어주는 ‘뉴트로핀’이라는 호르몬은 만난 지 2년이 채 못돼 거의 없어진다는 거야. 대신 귀여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올토신’ 호르몬이 이걸 대처하게 된다는군. 근데... 미모... 난 아무래도 호르몬 분비체계에 문제가 있나봐. 뉴트로핀을 주체할 수가 없어.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 미모... 내 뜨거운 마음, 평생 받아 줄 자신 있어?’

낭만적인 옛 추억에 젖어 있다 현재의 똑똑씨를 바라 본 미모, 아무 감정 없는 뻥한 그 표정에 일순 화가 치민다.

“미모, 무슨 생각했어? 옛날 남자친구 생각했구나. 그치. 내말 맞지?”

“됐거든요.”

“질리는구나? 거짓말 하는 게 표가 나잖아. MRI를 좀 찍어봐야겠어. 그걸로 뇌를 찍으면 습관적인 거짓말쟁이들은 회색부분이 훨씬 넓다는데, 혹시 미모도 회색인간 아냐?”

어쩔 6개월 사이에 사람이 이다지도 변할 수가 있단 말인가!! 미모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푹푹씨의 얇은 팔뚝을 사정없이 물어뜯어버린다.

“으악!!”

빈약한 몸매 어디에 이토록 지축을 올리는 찌렁찌렁한 핑음이 숨어있었던 것일까. 전방 100m 앞의 사람들까지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미모양, 아차! 실수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낯익은 호들갑이 들려온다. “어머머!! 미모 아니니. 이게 얼마만이야 넘 반갑다. 이 얇은 헨썸맨이 푹푹씨야? 와 정말 푹푹하게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 수다예요. 미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미금 막 소개팅 했는데, 남자가 폭탄 제대로 맞은 장동건이지 뭐예요. 하하하. 지금 싹 잘라버리고 나오는 길이에요. 어쩔 미모랑 푹푹씨 만나려고 그랬나부다.”

따발총처럼 쏟아내는 수다로 사람을 단 30초 만에 질리게 만든다던 전설적인 그녀의 이름은 오! 수다!

데, 그건 왜 그래요?”

“그건... 아마도 제 생각엔, 그 강아지가 곧 죽게 된다는 걸 어미 개가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걸 육감이라고 하죠? 겉으로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동물들은 기형이 있는 자식을 금방 알아내서, 아예 처음부터 키우지 않거든요.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오감 한 두개가 지나치게 발달한 것을 육감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물고기의 촉각이나 꼬끼리의 청각 같은 것 말입니다.”

미모 오랜만에 푹푹씨의 박학다식에 감탄한다. 친구 앞에서 우쭐한 기분도 든다. 사정없이 지식이 튀어나오는 푹푹씨의 거칠거칠하고 두툼한 입술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어찌 이리 사랑스러울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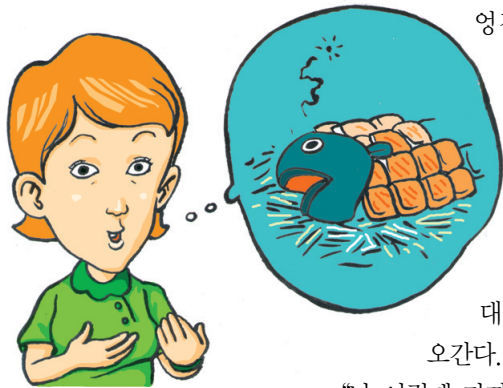
바로 이거였어. 내가 푹푹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편 오수다의 눈에서는 주룩주룩 한 줄기 눈물이 흐른다. 푹푹씨, 강아지의 죽음을 예감하며 슬퍼하는 수다에게 측은지심을 느끼려는데, 순간, 황당 발언을 해버리는 수다. “푹푹씨는 정말 명탐정 홈즈 아니 제임스 뽀드르군요! 미모야, 대관절 너는 어찌다 이렇게 멋진 남자를 만난거니!”

오수다와 헤어지고 다시 단둘이 호숫가를 걷게 된 푹푹씨와 미모양. 미모, 사라진 뉴트로핀이 부활이라도 한 듯 푹푹씨를 바라보는 눈길이 뜨겁다 못해 이글이글 타오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염없이 외친다.

‘나의 푹푹씨, 당신은 제임스 뽀드, 나만의 뽀드, 내 마음을 당신에게 찰싹 달라붙게 만들어 버리는 초강력 뽀드, 그리고... 당신 입술은 달콤한 뽀드!’

순간, 푹푹씨에게 기습 뽀뽀를 해버리는 미모. 따듯하게 서로를 감싼 두 사람 위로 연분홍 꽃비가 내린다. **KIS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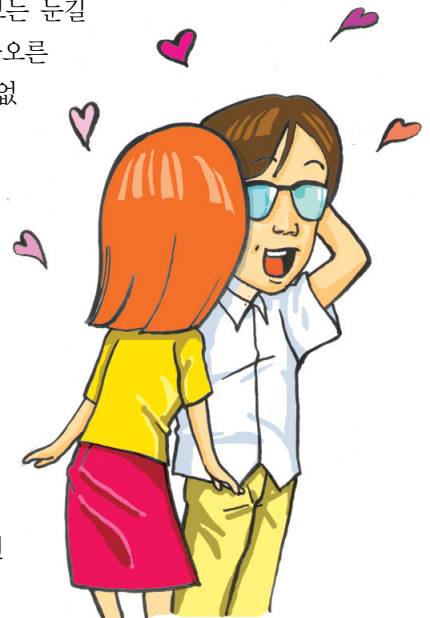


영겁결에 일식 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시킨 세 사람. 일방적인 질문과 논리적인 대답이 빠르게 오간다.

“난 이렇게 가까이에서 과학자 보는 거 처음이잖아. 뭐 연구해요? 원래 꿈이 과학자였어요? 참, 나 이거 진짜 궁금하더라. 왜 회의 무채를 잔뜩 쌓고 그 위에 낚요? 파도 아니고 고무마도 아니고 왜 하필 무야? 써서 그런가?”

“생선회에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고도불포화지방산인 EPA와 DHA가 많은데요. 근데, 산화가 엄청 잘돼요. 생선회의 지방산은 일단 산화되면 몸에 해로운 성분으로 바뀌고, 그럼 그걸 먹은 사람의 몸도 산화되고, 그럼 또 늙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무채에는 비타민C가 아주 많아서 회의 산화를 막아주거든요.”

“어머 어머, 그래서 회 찍어먹는 간장에도 무즙을 넣는구나!! 진짜 대단하다 푹푹씨. 그럼 그것도 알아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애긴데, 우리 집 개가 강아지 세 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한 놈한테만 젖을 안줘요. 아무리 노력해도 젖을 한 방울도 안줘서 젖병 물려서 키우고 있는



〈푹푹씨의 박학다식은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